

2010년 SI업계 빅5 자신 케이티인포텍

조직개편 · 신사업 발굴 '올인' ... 해외 메이저와 제휴 및 M&A 확대



지난 1986년 설립된 KT인포텍(대표 김기종 www.kti.co.kr)은 정보통신 분야 SI/NI 전문 기업으로 기본통신망, 초고속통신망, 데이터 통신망 등의 설계 및 구축은 물론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및 망관리 시스템 구축과 해외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KT의 자회사였던 KT인포텍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지난 2002년 5월 지분의 일부 매각을 통해 민영화가 이뤄졌으며, 올 8월에는 제2의 창립을 선언하고 재도약에 나섰다.

토탈 IT 서비스업체로 변신

KT인포텍의 주요 사업은 크게 전기통신 엔지니어링을 필두로 정보통신 SI, 해외통신 엔지니어링, 하드웨어 및 솔루션 판매 등으로 구분된다. 전기통신 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 시내전자교환시설, 인천

국제공항 통신자동화 및 군인공제회 통신위성 사업을 진행했고 정보통신 SI는 ERP나 네스팟 시스템 등 KT의 주요사업을, 해외통신 엔지니어링 부문은 태국, 몽골, 이란 등 해외수주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SI 부문에서만 92건의 사업수주로 43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해외통신 사업실적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최근 전사적인 차원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동안 KT 전화망 구축과 시물레이션이 매출을 좌우했으나 2~3년 전부터 이 시장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DRM 등 신규사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 이에 앞서 올 4월 현 김기종 대표 취임을 시작으로 외부 인사 영입, 사옥 이전 등 제도개선 및 조직 재정비를 마친 상황이다. 특히 삼성SDS 미국지사 부사장을 다년간 역임한 신임 대표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김기종 KT인포텍 대표는 “단순히 시스템 구축, 유지 보수와 같은 SI 프로젝트 사업이 아니라 IT 솔루션을 직접 개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컨설팅, 설계 및 구축, 유지 보수를 모두 아우를 계획”이라며 향후 비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장기적 육성사업에 인적 및 물적 프로세스를 집중시키는 동시에 중소기업 ERP 시스템 관리와 같은 고정 서비스 사업으로 수익구조를 재편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김 대표는 “궁극적으로 네트워킹 솔루션까지 확보한 고객 중심의 토탈 IT 서비스 공급업체로 거듭나겠다”고 사업구조 전환을 거듭 밝혔다.

또한 수익 다변화를 위한 신규시장 진출에도 사업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기종 대

표는 “해외 선진기업들과 전략적 제휴와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를 모색할 계획”이라며 “대형 국책 사업진출을 통해 KT 외에 협력선 다변화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안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DRM과 네트워크 솔루션 시장 진출도 그 일환의 하나.

아울러 연구소의 활성화 및 확충으로 특화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는 한편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10년 매출 5000억원과 영업이익 250억원으로 국내 SI업계 5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기중 대표는 “8월 매출액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총 매출액을 넘어섰다”면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올해 목표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로 잡았던 기업공개(IPO)는 늦어도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SI사업 잇단 수주

이 회사의 올해 가장 괄목한 만한 성과는 해외 사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SI 및 엔지니어링 시장의 가장 큰 이슈 또한 서비스와 해외시장 발굴이었지만 장비 재판매식의 비즈니스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

김기중 대표는 “세계 유수의 SI 기업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컨설팅과 설계 및 서비스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라며 “핵심인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사업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KT인포텍은 KT와의 굳건한 사업공조로 해외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태국에 ADSL 구축망 사업을 비롯해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통신망 구축 사업에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이란까지 진출하는 등 동아시아 및 중동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팔라우

의 통신서비스 사업권 및 무선 주파수 이용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드코프(MIDCORP 대표 앨런 시드)와 전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팔라우와 한국의 위성 기지국을 국제 관문국으로 연결해 팔라우 내 주요 호텔, 병원, 대학 등 팔라우 전국 31개 지역을 무선망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KT인포텍은 위성 수신기, 네트워크 장비 공급 및 망 구축 작업과 과금, 인증 시스템 구축 및 관리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미드코프는 31개 지역에 설치될 예정인 무선브리지 설치 지역을 향후 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70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와이브로 상용화도 검토 중이다.

김기중 대표는 “해외시장 개척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할 정도로 업계와 정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팔라우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해외 SI사업에서 KT인포텍의 경쟁력을 입증한 결과”라고 의의를 두었다.

R&D 투자를 강화하고자 KT인포텍은 현재 사내 연구소를 설립, 운영 중이며, 석사급 이상의 고급인력 비중을 점차 늘린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DMB나 와이브로 등과 관련 김 대표는 “별도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나 시장흐름을 주시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라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인포텍이 지향하는 기업문화는 윤리경영, 상생경영, 나눔경영이다.

“지속적인 투자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사와의 상호공존을 통한 호혜원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글로벌 IT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



김기중 KT인포텍 대표

글 | 최광열 기자(모바일타임스)